

2023. 9. 17. 오후 1:00,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7:24-30

제목: 은혜의 부스러기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7: 24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ESV) 7:24 And from there he arose and went away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yet he could not be hidden.

7:25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7:25 But immediately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 heard of him and came and fell down at his feet.

7: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7:26 Now the woman was a Gentile, a Syrophoenician by birth. And she begged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7:27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7:27 And he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ed first,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7:28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였다.

7:28 But she answered him, "Yes, Lord; ye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7:29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7:29 And he said to her, "For this statement you may go your way;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7:30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7:30 And she went home and found the child lying in bed and the demon gone.

✓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24 절.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까지 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표준새번역) 7:24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ESV) 7:24 And from there he arose and went away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yet he could not be
hidden.

25 절. 귀신들린 딸을 위해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7:25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7:25 But immediately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 heard
of him and came and fell down at his feet.

26 절. 그 여자는 수로보니계 출신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간청합니다.

7: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7:26 Now the woman was a Gentile, a Syrophenician by birth. And she begged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27 절. 예수님은 유대인을 ‘아이들’이라고 하시고,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7:27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7:27 And he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ed first,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28 절. 예수님의 매몰찬 말에도 물려서지 않고, 상 아래 개처럼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어 먹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7:28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였다.

7:28 But she answered him, "Yes, Lord; ye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29 절.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도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7:29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7:29 And he said to her, "For this statement you may go your way;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30 절. 집으로 가보니 정말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 내신 예수님은 부스러기 은혜로도 딸을 낫게 하셨습니다.

7:30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7:30 And she went home and found the child lying in bed and the demon gone.

여러분,

✓ 은혜의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부스러기 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부스러기 만으로도 그냥 집에 가면 아이가 나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 낫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자기를 낫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병 낫게 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낫기에 충분하다.

예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너비 2.7km 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이과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1 초에 1000 톤이 넘습니다. 1 초동안 떨어지는 이과수 폭포 물의 부스러기(1%가 10 톤)만 해도 우리의 옷과 머리와 온 몸을 적시고, 아니 수백명의 몸을 적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 커서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습니다. 구하십시오!

작은 믿음이 작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좀 모자라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아이의 병이 낫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듯이, 우리가 주께 긍휼을 구하면 주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십시오. 이과수
폭포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찬양: 214 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1 절)

(통일 349)

헌신과 봉사

E. H. Hamilton, 19th Century
보통으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

Jesus, my Lord, to Thee I cry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막 5:11)

TAKE ME AS I AM: 8.8.8.6.REF.
I. D. Sankey(1840-1908)

1. 나 주 의도 움 받고자 주 예수님 께 빌 니다
2.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 해 피 흘 렸 으니
3. 내 힘 과 결 심 약 하여 늘 깨 어 지 기 쉬 우니
4. 내 주 님 서 신 발 앞 에 나 꿇 어 엎 드 렸 으니

그 구 원 허 락 하 시 사 날 받 아 주 소 서
주 형 상 대 로 빛 으 사 날 받 아 주 소 서
주 이 름 으 로 구 원 해 날 받 아 주 소 서
그 크 신 역 사 이 루 게 날 받 아 주 소 서

후렴

내 모 습 이 대 로 주 받 아 주 소 서

날 위 해 돌 아 가 신 주 날 받 아 주 소 서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B⁷→G7 A^b→F

기도

- 크고 크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 은혜,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 그 은혜가 아들 하나님에게 담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그 모든 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예수, 그 은혜의 본체(부스러기가 아니라)이신 예수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9.17. 은혜의 부스러기, 마가복음 7:24-30)

1.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또한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No!'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No, not now. Wait!'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4.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거절의 수모도 겪으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구했던 그 여인에게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